

스포츠 종합

8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KBL, FA 대상선수 38명 공시



송교창

스물다섯살 FA 최대어 송교창 2019년 김종규 최고액 넘을까

(12억7900만원)

이재도·이관희·전준범 등도 즉시전력감 꼽혀

남자프로농구는 9일 안양 KGC의 플레이오프 우승 확정과 함께 2020~2021시즌 일정을 마감했다. 한 시즌의 마무리와 동시에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펼쳐졌다. 다음 시즌을 향한 물밑 경쟁이 곧바로 시작된 것이다.

KBL은 10일 FA 대상선수 38명을 공시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24일까지 10개 구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최대어'로 평가 받는 전주 KCC 송교창(25·200cm)이다. 고졸 선수인 그는 25세의 나이에 FA가 됐다.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했지만, 젊은 나이에 FA가 됐다는 자체에 자신이 쏠린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어급 선수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FA 자격을 얻은 탓에 정작 FA 계약 이후에는 전성기 기량에서 내리막을 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송교창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 53경기에선 평균 15.1점·6.1리바운드로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며 리그 내 최고 선수임을 입증했다. 남자프로농구 역사상 최고의 FA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여러 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보수 10억 원 이상의 초대형 FA 계약을 따낼 것이란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

역대 FA 최고 보수는 2019년 김종규가 창원 LG에서 원주 DB로 이적하면서 창건 12억7900만 원이다. 원 소속팀 KCC가 무조건 송교창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송교창이 김종규를 넘어 역대 최고 보수 FA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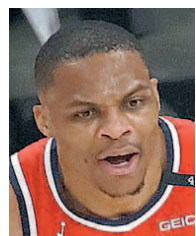
KGC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주역인 이재도(30·180cm)와 창원 LG 이관희(33·190cm)도 대어급 FA로 꼽힌다. 2020~2021시즌을 치르며 가드 포지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이들의 가치 또한 높아졌다. 가드 보장을 노리는 팀들이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일 전망이다.

울산 현대모비스 전준범(30·194cm), 서울 삼성 임동섭(31·198cm), 김현수(31·183cm), 고양 오리온 한호빈(30·180cm) 등도 즉시전력감 FA다. 이 가운데 김현수와 한호빈은 보상 없이 영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안고 있다.

국내 FA 선수와는 별개로 KCC 센터 라건아(32·199cm)의 거취도 주목된다. 계약기간(3년)이 만료되면서 특별귀화선수 드래프트에 나서기 때문이다. 특별귀화선수 드래프트는 14일 KBL 센터에서 참가 신청한 구단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0개 구단 모두 가능하며 13일 마감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웨스트브룩, 통산 182호 트리플 더블 새 역사



러셀 웨스트브룩

러셀 웨스트브룩(워싱턴)이 미국프로농구(NBA)의 트리플 더블 역사를 새로 썼다. 11일(한국시간)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벌어진 2020~2021시즌 정규리그 애크랜더와 워싱턴에서 28점·21어시스트·13리바운드로 개인통산 182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다. 1974년 3월 오스카 로버트슨이 작성한 181회를 넘어서는 NBA 역대 최다기록이다. NBA에서 트리플 더블을 통산 100회 이상 작성한 선수는 웨스트브룩, 로버트슨, 매직 존슨(138회), 제이슨 키드(107회) 등 4명뿐이다. '킹'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는 99회를 기록 중이다. 웨스트브룩의 대기록에도 불구하고 이날 워싱턴은 124-125, 1점차로 석패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KB손해보험 코치로 배구인생 2막 연 김학민

“몸 관리 노하우 등 내 경험 전해줄 것”

“선수생활 14시즌 즐겁게 마무리해 지도자와 선수간의 벽 허물고 싶어 선수시절 느낀 점 모두 전달하겠다”

V리그 남자부 통산 득점 4위 김학민(38)이 정들었던 유니폼을 벗었다. 새 인생의 시작은 KB손해보험 코치다. 후인정 감독 체제로 2021~2022시즌을 준비하는 KB손해보험은 지난 시즌 도중 감독 대행 맡았던 이경수 코치와 결별하고 김학민 신임 코치를 발탁했다. 2년 전 대한항공에서 이적해온 그가 후배들을 잘 다독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롤 모델이 된 점을 고려한 선택이다. 김 코치는 4일 KB손해보험의 코칭스태프 자격으로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도 참가했다.

2006~2007시즌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었던 그는 엄청난 체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을 자랑하던 선수였다. “공중에 뜨면 라면을 끓여먹고 내려올 정도”라는 과장된 말이 나온 점프가 장기였다. 대한항공이 첫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2010~2011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을 때가 선수생활의 정점이었다. KB손해보험은 이런 능력을 탐내 대한항공에서 은퇴하려던 그를 2019~2020시즌에 앞서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적 후에는 후배들에게 주전 자리를 넘겨주고 원업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선수로서 마지막 시즌이 된 2020~2021시즌에는 2경기 5세트에 출전해 한 번의 공격을 시도한 게 전부였다. V리그 14시즌 통산 성적은 391경기 1246세트에서 4128득점(공격성공률 51.87%), 203서브에이스, 355블로킹이다. 통산 득점은 박철우(한국전력·6277득점), 문성민(현대캐피탈·4466득점), 김요한(은퇴·4252득점)에 이은 남자부 4위다.

-은퇴식도 없이 현역생활을 마쳤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2020~2021시즌 후) 구단에서 지도자를 해보라고 권유하셨다. 그동안 선수들과 관



V리그 남자부 통산 득점 4위 김학민이 정든 유니폼을 벗고 KB손해보험 코치로 제2의 배구인생을 연다. 14년의 선수생활을 마친 그는 “꾸준히 잘해온 선수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KOVO

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본 모양이다. ‘선수들과 소통을 잘하라’며 기회를 주셨다.”

-지난 시즌 막판 감독 부재 상황에서 후배들을 다독이는 장면이 자주 보였다.

“팀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누구라도 선수들을 다독일 필요는 있었다.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조심하고 있는데 황택의 등 후배들과 구단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타임아웃 때 모든 선수들이 같이 응원하고 원업존에서도 파이팅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난 시즌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유니폼을 벗은 것이 아쉬울 텐데.

“내가 뛰진 안 뛰진 팀으로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좋은 결과나 나오면 그

것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로서 멋있는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4시즌 동안 즐겁게 선수생활을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

-지도자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나.

“내가 선수 때 느낀 것이었는데,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에 벽이 있는 게 좋지는 않았다. 가능하다면 편하게 선수들과 지내려고 한다. 그리고 선수생활 동안 느낀 점을 솔직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선수시절 느낀 점을 얘기해줄 수 있나.

“긴 시즌을 치르다보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상황에 맞춰서 몸 관리를 하는 노하우와 기술적으로는 나쁜 공을 처리하

는 요령과 내 경험을 알려주고 싶다.”

-체공능력은 타고나는 것인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타고난 부분이 많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나도 능력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웨이트트레이닝을 많이 했다.”

-어떤 선수로 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나.

“꾸준히 잘해온 선수로 기억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그동안 큰 부상 없이 오래 선수생활을 해온 것에 감사한다. 이런 몸을 주신 부모님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 그동안 든든하게 후원해주신 가족 등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리다. 응원해주신 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부진한 1인자’ 최혜진, NH투자증권 챔피언십서 부활할까

14일부터 사흘간 수원CC서 개최
2019년 우승…타이틀 수성 도전

아직 4개 대회밖에 하지 않았지만, 초반 부진이 예상롭지 않게 다가오는 건 다른 선수가 아닌 최혜진(22)이기 때문이다. ‘디펜딩 챔프’ 자격으로 나서는 시즌 5번째 대회, 그는 아쉬움을 털고 2021년 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

최혜진은 14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용인시 수원CC 뉴코스(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1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7억 원)에 출전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대회가 열리지 못해 2019년 우승자 최혜진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타이틀 수성에 도전한다. 아마추어 시절 2승을 포함해 총 10승을 거둔 최혜진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타이틀 수성에 성공한 적이 없다. ‘국내 1인자’로 꼽히는 그로선 아쉬운 대목. 특히 시즌 초반 기대 박성적을 거두고 있어 첫 타이틀 방어와 부진 탈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즌 개막 후 4개 대회에서 최혜진은 대상포인트 12위, 상금 17위에 랭크돼 있다. KLPGA 투어 사상 첫 대상 4연패를 노리는 그의 이름값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표다. 시즌 3번째 대회였던 제43회 KLPGA

챔피언십에서는 프로 데뷔 이후 두 번째이자 약 3년 만에 첫 탈락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다. 그나마 직전 대회였던 교촌 허니 레이스오픈에서 공동 7위로 시즌 2번째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위안거리. 시즌 초반이라 아직 절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타공인 국내 1인자인 최혜진으로선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

최혜진 외에도 눈 여겨 볼 선수로는 발목 부상을 딛고 복귀한 장하나(29), 2년 연속 K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메이저 쿼’으로 자리매김한 박현경(21)이 있다. 나란히 시즌 2승에 도전하는 이소미(22), 박민지(23), 박보미(29) 등도 주목해야 할 우승 후보들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최혜진

대한체육회·교육청,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개최

9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 본선 운영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주관하고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1년도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가 열린다.

참가대상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종사자이다. 참가자는 연구논문, 수업사례 2가지 분과 중 연구주제를 자율 선정해 참가할 수 있다. 시도별 본선을 거쳐 출품된 작품들은 전국대회 입상 등급에 따라 교육부장관상과 대한체육회장상을 받게 된다.

9월까지 5개월 간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본선을 운영한다. 본선 입상작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10월 8일까지 출품되며 최종 심사를 거친다. 전국대회 심사 결과는 11월 초에 발표한다.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는 교육부의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및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근거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현장 전문가인 교원의 체육교육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고, ‘운동하는 모든 학생·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학교체육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인천, 경기,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별 본선에서 207편(연구논문 172편, 수업사례 35편)의 출품작을 심사해 38편의 입상작이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회에 접수됐다. 최종 입상작으로 선정된 총 14편(연구논문 11편, 수업사례 3편)은 에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